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2. 스포츠 산업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래
3.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엘리트층에게 유리하다
4. 연중무휴 24/7 디지털 시장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유
5. Block Protect, 봇이 만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방법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저우커우 직업기술대학 연구진은 중국 은행을 대상으로 핀테크 도입이 재무 성과 및 환경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함
- 핀테크 도입은 은행의 재무 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CSR, 녹색 금융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냄

은행 경영진과 정책 입안자들은 핀테크 혁신을 ESG 전략과 통합하고, 규제 인센티브 및 투명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금융 부문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지원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함

▶ 핀테크 도입이 은행업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운영 구조와 경쟁 구도를 혁신적으로 재편하고 있음

- 금융기술(Fintech)의 도입은 은행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촉발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게 만들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함
- 특히 중국에서는 핀테크 혁신이 은행업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운영 구조와 경쟁 구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임

▶ 본 연구는 은행업에서 핀테크 도입(FA),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ESP), 재무 성과(FINP), 녹색 금융(GF),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등 다섯 핵심 변수가 상호 연관되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은행산업에서 FA, ESP, FINP, GF, CSR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함
- **(핵심 변수 #1)** FA(핀테크 도입)는 서비스 효율성 향상, 고객 경험 개선, 시장 경쟁력 증대를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함
- **(핵심 변수 #2)** ESP(환경 지속가능성 성과)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은행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과 자원 소비를 줄이는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임
- **(핵심 변수 #3)** FINP(재무 성과)는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수익성, 투자 수익률, 시장 점유율 등에 미치는 경제적 성과를 나타냄
- **(핵심 변수 #4, 5)** GF(녹색 금융)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각각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는 지속가능 금융 활동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 이행을 의미하며, 은행의 지속가능 경영 실천 의지를 반영하는 지표임

▶ FA, ESP, FINP, GF, CSR 간의 8가지 가설을 제시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함

- **(가설 #1)**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자원 기반 관점(RBV)은 기업의 경쟁우위가 희소하고 모방이 어려운 고유 자원에 의해 결정됨
- 핀테크 기업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은행에게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희소한 경쟁우위 자원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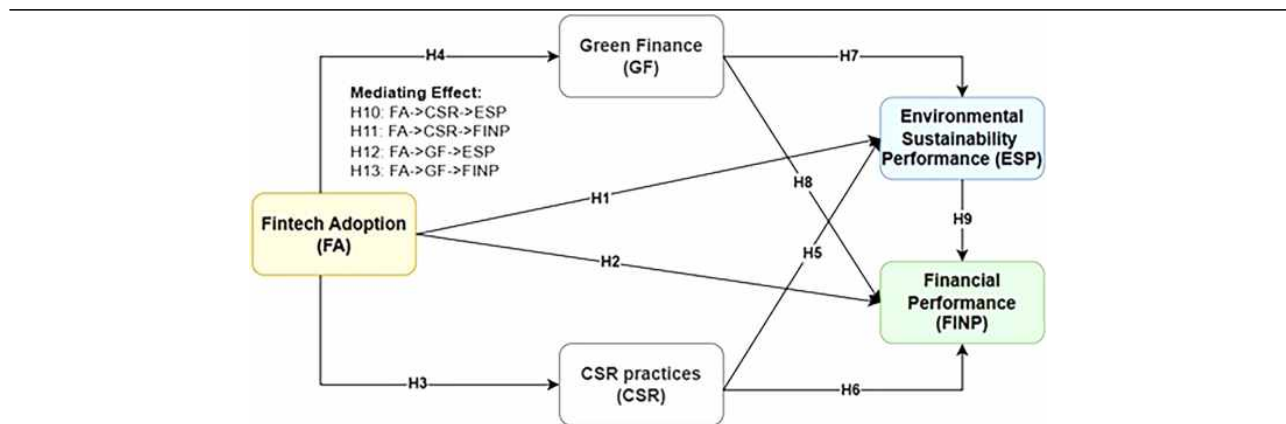
- 이를 활용하여 은행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CSR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
- 자원 기반 관점에서 핀테크는 은행에 새로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요소임
- 영국 전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핀테크 도입이 순이자마진과 자산수익률을 개선하여 은행 성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음
- 핀테크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 등 은행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핀테크와 은행 성과 간의 관계가 지역 시장의 특성과 제도, 기업의 전략에 따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함
- **(가설 #2)** 핀테크는 인터넷 보급 확대와 금융 포용성을 통해 녹색 경제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은행의 경쟁 우위 확보에 기여하는 독특한 자원으로,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즉, 핀테크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부는 핀테크를 활용한 그린 크레딧 사전 심사와 환경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권장함
- **(가설 #3)**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CSR 관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핀테크 도입은 금융권의 CSR 관행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며, 연구에 따르면 핀테크 참여와 CSR 활동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 예를 들어, 정치적 연결이 강하고 내부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핀테크 참여와 CSR 활동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임
- **(가설 #4)** 이처럼 핀테크는 녹색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기술자원이므로,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녹색 금융 관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핀테크는 그린 크레딧 배분을 개선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핀테크가 기후재정과 연계된 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에 기여함
- **(가설 #5)** 이와 같은 동향은 CSR과 ESP 및 FINP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시사함에 따라 CSR이 은행의 ESP와 FINP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CSR 활동의 영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진정성 가설은 적극적 CSR 노력이 기업의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요인으로, '은폐' 가설은 기업이 CSR을 통해 저조한 환경성과를 위장할 수 있다는 견해임
- 최근 유럽과 파키스탄 기업들의 사례 분석에서 CSR 투자가 장기적 재무성과 개선 요인임이 확인됨
- **(가설 #6)** 녹색 금융이 ESP와 FINP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가설 #7)** 은행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가 재무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함
- **(가설 #8)** 이에 CSR이 핀테크와 은행의 ESP 및 FINP 간의 관계에서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함
- 여러 연구에서 CSR과 재무성과 간에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다수 실증되었는데, 특히 다양성, 노동권 보장, 안전 투자 등의 CSR 위원회 운영이 기업가치를 높이는 요인임

- 비록 CSR이 핀테크와 성과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로서의 확신은 부족하지만, CSR의 재무적 이익과 핀테크의 환경 성과 기여가 동시에 고려될 때 CSR은 두 변수 사이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높음

▶ 257명의 중국 은행 전문가 대상의 분석을 통해 핀테크가 은행의 성과를 제고하는 핵심 수단임을 확인함

- **(연구방법)** 은행 전문가 257명을 대상으로 2023년 35월 중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 실시함
- **(설문대상)** 응답자의 남성 비율은 59.1%, 여성 비율은 40.9%이며 연령대는 20~29세(42.0%)와 30~49세(52.5%)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학력 수준은 대다수가 학사 이상이었으며 근무 경력은 6년 이상이 54.1%로 대다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표본 특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긍정적인 요소임
- **(분석방법)** 공통 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 검증, Harman의 단일요인 검정, 응답 시간 분석, 각 변수의 분산 팽창계수VIF 검사 등으로 데이터 편향 여부 확인과 결과 도출
- **(데이터 분석 기법)** PLS-SEM과 필요조건 분석(NCA)을 활용한 가설 검증 및 SmartPLS 및 NCA 적용함
- **(분석 결과)** CSR 활동은 재무성과에 주는 영향이 직접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핀테크는 은행의 지속가능성과 성과를 높이는 데 있어 녹색금융과 CSR과 같은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확인함

[연구 프레임워크]



출처: Nature, 'Integrating Fintech, CSR, and green finance: impacts on finan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hina', 2025.07.12.

▶ 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투자 추적 시스템과 AI 환경 리스크 관리 등 핀테크 솔루션을 통해 녹색금융 활동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CSR의 장기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장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병행해야 함

- **(시사점 #1)** 은행은 핀테크 혁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수익성뿐 아니라 친환경 금융 상품과 CSR 활동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
- **(시사점 #2)** 핀테크를 활용하여 녹색 금융과 CSR 활동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친환경 투자 추적 시스템이나 AI 기반 환경 위험 관리를 도입할 수 있음
- **(시사점 #3)** 핀테크 도입은 환경 지속가능성 성과를 개선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배출 모니터링, 그린 프로젝트 평가 등을 강화하고, 친환경 대출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시사점 #4)** CSR 활동과 재무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미약하게 나타난 점은 CSR의 효과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은행은 CSR 투자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 **규제기관은 핀테크·녹색금융 통합 인센티브 제공, 은행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이해관계자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언 #1)** 규제기관은 핀테크와 녹색 금융 통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예를 들어, 친환경 금융서비스나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거래소 설립을 지원할 수 있음
- **(제언 #2)** 은행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은행이 핀테크 기반 서비스와 CSR 활동에 따른 환경·사회 영향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음
- **(제언 #3)** 디지털 기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배출 감축을 인센티브화 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탄소배출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면, 거래 비용 절감과 참여 확대가 가능함
- **(제언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은행, 핀테크기업, 환경단체, 정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공동 연구, 실증 프로젝트, 표준 개발 등을 통해 핀테크와 녹색 금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 금융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규제 환경을 마련해야 함

▶ **분석을 통해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재무 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CSR, 녹색금융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함**

- PLS-SEM 분석 결과 핀테크 도입이 은행의 FINP, ESP, CSR, GF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녹색금융(GF)에 대한 효과가 가장 큼을 확인함
- 한편 CSR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CSR의 효과가 간접적 경로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함
- NCA 결과는 핀테크 도입과 환경 성과가 재무 성과 개선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핀테크를 은행의 핵심 경쟁 자원으로 보고, 핀테크 기반 혁신이 지속가능 경영과 재무 성과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론적 기여)** RBV와 지속가능금융 이론을 통합하여 핀테크의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실무적 기여로는 은행이 핀테크를 활용하여 ESG 목표를 달성하고 재무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함
- **(제한점)** 중국 은행만 대상으로 했고 표본 크기가 257명으로 제한적임.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결과를 검증하고, CSR과 핀테크의 효과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질적·혼합 방법론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핀테크 도입은 은행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성 모두를 강화하며, 특히 녹색 금융 활성화와 CSR의 역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 • 은행 경영진과 정책입안자는 핀테크 혁신을 ESG 전략과 결합해 추진해야 하며, 규제 인센티브, 탄소 배출권 디지털 시장 구축, ESG 정보 공시 강화 등 제도를 통해 금융 부문의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을 지원해야 함 |
|---|

[출처]

- Nature, 'Integrating Fintech, CSR, and green finance: impacts on financial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China', 2025.07.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의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거래

- 중국 산시 대학의 연구진은 스포츠 산업 내의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과 AI를 통합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 기존의 중앙형 시스템의 한계를 블록체인과 AI를 결합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함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 자동화, 토큰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최적화가 스포츠 산업의 효율성, 보안성, 혁신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함

▶ 중국 상시 대학 연구진은 스포츠 산업의 중개자 중심 거래 시스템의 비효율을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

-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스포츠 산업을 구조적 변화의 시대로 진입시키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
- 그러나 기존 디지털 거래 시스템은 중개자 중심으로 인한 비효율성, 낮은 투명성, 수익 불균형 등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이런 현실에서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불변성, 스마트 계약 기반 자동화를 통해 거래의 신뢰성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름
- 이에 중국 상시 대학의 연구진은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거래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지속가능성과 혁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함

▶ 네트워크 기반 SINM과 AI 강화 최적화 SOFSI 모델을 제안하고, 다양한 데이터셋과 GPU 실험환경에서 스포츠 산업의 최적화를 검증함

- **(연구 방법론 및 모델 설계)** 스포츠 산업 가치 사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 모델링과 인공지능(AI) 강화 최적화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모델 #1)** 스포츠 산업 네트워크 모델(SINM)은 동적 그래프 이론과 수익 흐름 방정식을 활용하여 구단, 스폰서, 미디어, 팬 플랫폼 등 핵심 부문들의 상호 연결된 운영을 모델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 모델에서 각 부문의 수익은 국지적 상호작용과 글로벌 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투자가 수요 및 미디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임
- **(모델 #2)** 스포츠 산업을 위한 전략적 최적화 프레임워크(SOFSI)는 SINM을 기반으로 스포츠 산업의 효율성, 지속가능성,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레임워크임
- SOFSI는 수익 극대화, 자원 할당,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을 다루며, 이는 동적 가격 책정 전략, 정부 개입(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시스템 전반의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함
- 모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함
 - **(실험 환경)** NVIDIA Tesla V100 GPU와 Ubuntu 18.04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PyTorch를 사용함
 - **(데이터셋)** UEFA 재정 페어플레이 데이터셋, OpenSea NFT 마켓플레이스 데이터셋 등을 포함
 - **(데이터 정규화)** 데이터셋은 전처리 과정(정규화, 특징 추출, 범주형 변수 처리 등)을 거쳤음
 - **(모델 학습)** Adam 최적화 도구 사용, 과적합 방지 및 수렴 촉진을 위해 학습률 스케줄러와 조기 종료 기준을 설정함

▶ **스포츠 산업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신뢰 개선과 가치 사슬 최적화 모델 구축, 블록체인 시스템의 속도·보안·비용 효율성 이점을 분석함**

- **(질문 #1)** 블록체인 기술이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거래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투명성 저하와 신뢰 부족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 **(질문 #2)** 스포츠 가치 사슬 내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표현하고 거래 및 투자를 최적화할 시스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질문
- **(질문 #3)** 제안하는 블록체인 기반 모델이 기존 중앙 집중식 시스템에 비해 거래 속도, 보안성, 비용 효율성 등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이점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과 AI의 통합을 통해 스포츠 조직, 스폰서, 팬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 팬 참여 활성화, 몰입형 경험 등을 누리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 결과는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심층적인 시사점을 제공함
- **(시사점 #1)** 스포츠 조직 및 구단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해 티켓 판매, 선수 이적료 정산, 스폰서십 수익 분배 등 복잡한 재무 및 계약 과정을 자동화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시사점 #2)** NFT와 같은 토큰화된 자산을 활용하여 팬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팬덤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님
- **(시사점 #3)** 스폰서 및 미디어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데이터 기록을 통해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의 실제 성과를 명확하게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 대비 효과(ROI)를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함
- **(시사점 #4)** 팬들은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디지털 기념품을 소유하는 등 더욱 몰입감 있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얻음
- 이를 통해 블록체인과 AI의 통합이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존의 중앙 집중식 시스템이 지닌 신뢰, 투명성,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블록체인 및 AI 기술 도입을 통한 스포츠 산업의 효율성, 투명성, 혁신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 **(방안 #1)**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강화가 필수적임
- 정부 및 규제 당국은 스포츠 산업 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와 보조금,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스마트 계약 기반의 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토큰화된 스포츠 자산의 법적 지위 명확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연구 개발 지원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 채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방안 #2)**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및 최적화 역량 강화가 시급함

- 스포츠 조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팬 행동 패턴 분석, 시장 수요 예측, 선수 성과 평가 등 다양한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
- 특히, 블록체인에 기록된 투명한 거래 데이터를 AI와 결합하여 사기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운영을 가능케 함
- **(방안 #3)**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인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
- 스포츠 단체, 기술 보유 기업, 미디어, 팬 커뮤니티, 그리고 정부 기관 등 스포츠 산업의 모든 주체들이 블록체인 및 AI 기술 도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이들은 공동 연구 프로젝트,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식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음
- 이러한 협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며, 스포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
- **(방안 #4)** 팬 참여 및 수익화 모델의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 NFT, 팬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여 팬들이 구단 운영에 참여하거나, 독점 콘텐츠에 접근하고, 특정 이벤트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팬 참여 모델을 개발해야 함
- 이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형태의 수익원을 창출함으로써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및 실무적 제언들은 스포츠 산업이 디지털 시대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고,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혁신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음

▶ **제안된 모델은 특정 데이터셋에만 검증돼 추가 일반화 연구가 필요하고, 블록체인·AI 기술 발전 및 규제 변화에 대한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적응성 검토와 팬덤 문화를 통합한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연구가 요구됨**

- **(한계점 #1)** 현재 모델은 특정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검증되었으므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데이터셋을 통한 일반화 가능성 검증이 필요함
- **(한계점 #2)** 블록체인 및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제안된 모델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한계점 #3)** 향후 연구에서는 팬덤 문화, 사회적 영향, 윤리적 고려 사항 등 인문사회학적 관점을 통합하여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함

- 블록체인과 AI 통합 모델은 스포츠 산업의 비효율적인 디지털 거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 보안성,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프레임워크로 스마트 계약 자동화 및 토큰화된 자산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
- 실제 데이터셋 기반 실험은 제안 모델이 기존 시스템 대비 속도, 보안성, 비용 효율성에서 우수함을 입증, 이는 스포츠 조직, 스폰서, 팬, 정책 입안자에게 미래 디지털 스포츠 경제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적 통찰력을 제공함

[출처]

- Nature, 'Research on the digital transaction model of the sports industry chai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2025.07.1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평가팀

[미국]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일반인이 아닌 엘리트층에게 유리하다

- Pauline Shangett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권력층만 이익을 보도록 설계되었다고 비판함
- 또한, "정치 코인"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완화가 정치인·엘리트층에 유리한 '정치 코인' 시장을 조성해 일반 투자자를 소외시키므로, 투기적·정치적 개입 없이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확보해야 함

▶ Pauline Shangett은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이 재정적 자유를 주장함과는 다르게, 일반인을 소외시키고 일부 정계 인사와 부유한 엘리트층이 수혜를 받는다고 주장함

- 비수탁 암호화폐 스왑 플랫폼인 ChangeNOW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Pauline Shangett은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재정적 자유를 옹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혜자는 정계 인사와 부유한 엘리트층과 같은 권력층이다." 라고 발언함
-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이 세계 시장에 큰 신뢰감을 불어넣으며 국경 없는 자산인 암호화폐의 큰 혜택을 누리고 있음
-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공격적인 움직임의 이면에는 소수에게 유리하고 다수를 무시하는 권력 집중이 숨어있음
-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암호화폐 벤처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은 행정부가 감독을 완화하기 시작하자마자 자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토큰을 출시하였으며, 동시에 법무부는 암호화폐 단속팀을 해체하고 자금 세탁을 겨냥한 수사를 중단함
-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는 WLF를 비롯한 유사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이들이 금융 영역을 확장하는 동안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됨
- 더욱 주목받는 것은 암호화폐의 정치화인데, 이른바 "정치 코인"이라고 하는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과 관련된 코인이 시장에 넘쳐나며,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중앙집권적인 영향력을 구축한다는 우려가 커짐
- 즉, 금융 권한 강화라는 약속은 투기적 이익에 가려져 있으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정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는 방향을 취해야 함

-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정치인·엘리트층의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이 소수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독 체계를 재정비해야 함
- "정치 코인" 등의 시장 과열과 투기적 구조는 일반 투자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실질적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투기적 요소를 배제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

[출처]

- Cointelegraph, 'Trump's crypto agenda favors elites, not the everyday user', 2025.07.11.

웹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연중무휴 24/7 디지털 시장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이유

- 전초 경제는 낮은 유동성·정치적 불안정·미비한 금융 인프라로 자본 공급이 끊기기 쉬운 구조임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큰화 기반의 24/7 디지털 시장을 구축해 글로벌 유동성을 지속 공급해야 함

Richardson은 전초 경제의 낮은 유동성과 불안정한 금융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24/7 디지털 시장과 토큰화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 미국 주도의 투명성 우선 개발 모델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함

▶ Richardson은 불안정한 금융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토큰화 기반 24/7 디지털 시장의 구축을 촉구함

- 기존의 전초(frontier) 경제에서는 낮은 유동성,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미비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본 공급이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 또한, 중국이 불투명한 대출을 쏟아붓고 러시아가 불안정화에 자금을 대는 상황에서, 미국은 민간 부문 주도의 투명성 우선 개발 모델이 필요함
- ASUP(America-Ukraine Strategic Partners)의 임시 회장인 Davis Richardson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펜과 종으로 세계 금융 질서를 세웠듯이, 토큰화(tokenization)가 코드를 통해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설명함
- 특히 24/7 디지털 시장이 국경·지리·시간대의 제약을 해소하여 자본과 유동성을 끊임없이 글로벌하게 공급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디지털 시장 재건 과정에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주장함
- 대표적으로 백악관의 DOGE(Digital Operational Government for Enterprise) 이니셔티브와 블랙록의 140억 달러의 자본이 IBIT ETF에 유입된 것은 토큰화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에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토큰화된 시스템은 감사 기능, 모듈식 통합, 그리고 국가 주권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는 미국의 성과 기반 원조를 지향하는 국무부의 권한과 부합함
- 그러나 Richardson은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상호운용성, 그리고 네트워크·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함
- 결론적으로 Richardson은 정책 입안자, 개발 기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24/7 디지털 시장을 뒷받침할 법적·기술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금융 포용을 확대하고 전초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회복 탄력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정책 입안자·개발 기관·민간 부문이 협력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상호운용성, 네트워크·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이를 통해 24/7 디지털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 투명성 우선의 민간 부문 주도 개발 모델은 중국·러시아의 불투명한 대출·자금지원에 대응해 전초 경제의 금융 포용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

[출처]

- CoinDesk, 'Why 24/7 Digital Markets Will Power Development in Frontier Economies', 2025.07.1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안전지원본부 신기술안전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Block Protect, 봇이 만든 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방법

- 현재 생성형 AI로 제작된 상업적 작품에 대한 권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 Lawdit Solicitors는 Block Protect를 통해 AI 출력물을 인증서로 영구 보관해 증거를 강화하고자 함

생성형 AI 산출물의 불명확한 저작권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Block Protect 등의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확보와 특허·상표·저작권 정식 등록 및 IP 변호사 자문을 병행하는 ‘행동은 빠르게, 문서는 철저하게’ 전략이 필수적임

▶ Lawdit Solicitors는 생성형 AI를 통한 저작물에 대한 입증용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Block Protect를 공개함

- 최근 생성형 AI는 캠페인 슬로건, 로고, 코드와 같은 상업적인 작품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내지만, 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은 여전히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있음
- 영국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에 따르면 컴퓨터 생성 작품의 저작권은 “필요한 준비를 한 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프롬프트를 작성한 사람이 기본적 권리자가 됨
-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원본 파일만으로는 손쉽게 위변조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서 결정적 증거로서의 효력을 기대하긴 어려움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awdit Solicitors는 AI 출력물을 블록체인에 해시로 저장하고, 타임스탬프가 찍힌 인증서를 발급해 “디지털 금고”에 작품을 잠그듯 증거를 영구 보관하는 Block Protect를 공개함
- 그러나, Block Protect가 제공하는 것은 “등록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입증용 증거일 뿐, 특허나 상표 등록처럼 법적 효력을 갖춘 권리 취득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음
- 또한, 인증 타임스탬프는 작품이 공개되기 전에 확보해야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공개 후에는 아무리 블록체인에 기록해도 선사용 주장에 대한 방어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AI 생성물 보호를 위해서는 ① 작품이 공개되기 전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확보 ② 특허, 상표, 그리고 저작권 등의 정식 등록 절차 병행 ③ 필요시 전문 IP 변호사의 자문을 결합 등의 전략이 필수적임
- 이처럼 기술 발전 속도를 법제가 따라잡기 어려운 현시점에서, “행동은 빠르게, 문서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으로 초기 증명을 확보해야만 AI 시대의 지식재산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음

-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로 AI 생성물의 생성 시점을 공증하고, 특허·상표·저작권의 정식 등록 절차를 병행하며, IP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AI 창작물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확보하여 결정적 증거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음
-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법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Lawdit Solicitors, ‘Blockchain, Web3 Poised to Reshape Global Real Estate, Experts Say’, 2025.07.02..